

믈라티-족자카르타 성 알로이시우스 곤자가 중학교 59 주년



족자카르타 슬레만 블라티에 위치한 성 알로이시우스 곤자가 중학교는 주변 지역 사회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6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느님께, 특히 두 수녀(마리아 야코바 수녀, SND, 마리아 클라우디아 수녀, SND)를 이 위대한 사도직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드립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사랑과 인내로 가르침과 보살핌을 받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성 알로이시우스 곤자가 중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믿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은 학생들이 학업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뛰어난 최고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토대가 됩니다. 수년 동안 학교는 사회에 봉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학교는 더욱 다양해져서 인도네시아 전역의 여러 섬과 도시에서 온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성 알로이시우스 곤자가 중학교는 개교 59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학생, 교사, 수녀님들 모두에게 축복받고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축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모여든 아침은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를 앞둔 몇 주 동안 학생들은 춤, 노래, 단막극을 즐겁게 연습했습니다. 기념행사의 주제는 "케토프락 칠릭 레스타리칸 부다야(Ketoprak Cilik Lestarikan Budaya)"로, "케토프락을 통해 문화를 보존하는 젊은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케토프락은 중부 자바와 족자카르타의 전통 공연 예술로, 대화, 노래, 춤이 가를란 음악의 리드미컬한 선율에 맞춰 어우러지는 예술입니다. 학교는 이 주제를 통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행사는 오후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특별 손님으로는 본당 사제, 다른 분원 공동체의 노틀담 수녀들, 학교 관리자가 참석했습니다. 아름다운 자바 전통 춤과 악기 연주로 행사가 시작되었고, 참석하신 모든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손님들은 공연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초창기 수녀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의 모범은 오늘날 교사들에게도 더욱 따뜻하고 인내심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교 공동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학교의 성장과 성공을 뒷받침하는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